

인종에 예민한 호주

어느 스승과 제자와의 대화다.

제자: 선생님, 사랑은 무엇인가요?

스승: 내가 몰겠다. 사랑은 무엇이나?

제자: [말문이 막힘]

스승: 이것이 바로 사랑 이니라.

제자: [이해 못하는 침묵]

스승: 네가 나에게 물어보고 내가 너에게 물어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니라.

동양적인 월이 많이 들어있는 대화다. 서로 눈에 보이는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를 유지 하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서양적 차원을 떠나 남을 위해 이익 없는 희생을 할 각오가 보이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이다.

요즘 호주를 떠들썩 하게한 발리에서의 마약 사건의 두 여인들에 대한 호주 매스컴의 태도를 보며 나는 느끼는 것이 많다. 공고롭게 미셀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Michelle Corby (미셀 콜비) 와 Michelle Leslie (미셀 래슬리) 은 둘다 마약 관계로 발리에서 잡혔다.

미셀 콜비는 토종 호주인으로서 거희 히스태리아에 가까운 호주 국민과 호주 정치인들의 동정심과 인도네시아 정부를 향한 혐오심을 일어 냈지만 재판에서는 패하여 현재 징역을 계속 살고있다.

미셀 래슬리는 호주 아빠와 필리핀 엄마 사이의 혼혈아 로서 호주 매스컴은 불만스러운 관점으로 그의 상황을 계속 취급하였으나 3개월 징역으로 풀려 몇일전 호주로 돌아 왔다.

3 개월 이란 지옥 같은 경험을 하고 돌아온 미셀 래슬리에게 호주 사회은 매우 혹독 하였다. 나라의 수상은 만약 잡지사에서부터 돈을 받게되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금으로 취급하겠다고 엄포를 노았고 그 후엔 외무부 장관, 판사 등등 여러 호주 사회의 지주들이 언론을 통해 아직 아무런 의사를 발키지 않은 미셀 래슬리에게 얼음장을 노았다.

내가 느낀것은 그는 호주인 그러니까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수 없고 존중할 필요도 없으며
업포로서 욕박해 다루어야 하는 하나의 인간이 되어 버린것이였다. 그러치만 미셸 래슬리는
그러케 결론을 내릴만한 행동이나 말을 한적이 없었다.

이러한 공격에 시달리는 미셸 래슬리를 위해 그의 호주인 아버지는 기자 회견을 열어 처음 한
말은 자기 딸에 대한 비 호주적인 혐오에 너무 실망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은 집까지
단보에 잡혀 자기 딸을 구출해 내는 희생을 하였다는 것이다.

호주 언론은 미셸 래슬리와 그의 부모들을 너무 비하하게 본것이며 그 이유는 인종적인것
이였다. 우리가 인정하여야 하는것은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세계의 그 어느 민족 못지 않게 인종에
예민 하다는 것이다. 개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종적인 편견은 그들 깊은 속에서 잔재하며 언제
터질줄 모르는 시간 폭탄 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회 구조의 인종 차별은 그 어느 사회보다 없엘라고 노력 하였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호주
사회는 흠이 없는 편이다. 그래서 나는 호주가 인종 차별의 국가라는 것을 부인 한다 왜냐면
제도적으로 조금씩 여기저기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 없는 나라는 거의 없을 정도 이기
때문이다. 다만 호주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함과 인종적 우월감에서 나오는 인종에 대한
예민성은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고 본다.

내가 말하는 인종적인 예민함은 그 무슨 결정을 (예를 들어 그사람이 좋다 싫다, 그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하기 전 인종이라는 휠터로 먼저 걸른 다음에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자식들에게 호주사회에 들어가 그들을 위해 봉사하여 그들의 편견을 바뀔
보라고 예기 할수 있는 용기가 아직은 서지가 않는다. 내 자식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싶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러치만 그들의 능력이 된다면 용기를 내볼만도 할것이다.

우리가 소수 민족으로서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의 해결책은 역시 유대인들에게서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처럼 조용히 자신들의 중요한 가치관들은 지키지만 나머지 풍습들은 그 나라것을

따르며 중요한 기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계속 유대인으로서의 아이디를 유지하며 서로 뭉쳐 유대인으로서의 손실을 막아 내는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럴 날이 와야 될것이다.

다른 방법은 죽은 빅터 찬 의사 처럼 호주 메스콰에서 인정을 받으며 소수 민족과 주류 민족간의 믿음과 신뢰를 이루어 지게 할수 있는 사람이 호주 사회에 계속 나오길 바라는 바이다. 그리하여 앞에서 본 스승과 제자처럼 서로 신뢰하고 사랑 하고 서로 인정 할 것은 인정 하면서 살다가 이땅에서 빠져 묻히기를 바라는 바이다.